G P 선교회 김동건 배영혜 기도편지 76 (2026 단풍 丹楓)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에베소서 1:16)

한국의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후변화로 이번 단풍은 좀 아쉽지만, 태국으로 귀임을 생각하면, 여전히 감동이고 소중한 추억입니다. 지난 8년간 본부사역을 통해 필드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큰 과오 없이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콕열린파키스탄난민교회(OPR)의 아래층에서 태국인교회를 개척 목회하는 스콧 방 선교사(한인 1.5세)가 섬김에 합류하였습니다. 파키스탄 난민들로 구성된 OPR의 복잡한 상황을 가까이서 잘 알고 돕고자 하셨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GP선교회 10월 GP국제협의회와 GP한국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국대회는 4년 만에 개최되어, Re:Member를 주제로, 380여분의 선교사와 이사 그리고 MK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대회장소인 부산브니엘교회(김도명목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섬겨주셨습니다. 좋은 숙소를 제공해 주신 박지연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 박수민선교사가 한국대표로 섬기게 되어, 업무인수인계 중입니다. 450여 현장 선교사들이 45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족 저희는 산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까지 한국본부 근무를 마치고, 2027년은 안식년으로 보내면서 태국 귀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요한이는 뉴욕에서 영상의학과 레지던트로, 윤경이는 코네티컷에서 미대 교수로 있습니다. 하경이는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올해 말까지 대표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필드와 본부 리더십교체가 잘 이루어지기를
2. 신입 선교사들에게 좋은 후원교회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3. 연말과 2027년에도 좋은 선교지원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기를, 잘 훈련하여 파송하기를
4. 앞으로 사역지를 인도하시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2026년 11월 4일 김동건 배영혜 요한(정인)/윤경/하경 드림

서울 송파구 새말로8길 17. 2층. 지피한국선교회. 우)05810 전화 (02-443-0883, 010-9593-2881)
이메일 byh2885@gmail.com 카카오톡ID ilovebyh77 후원계좌 : 하나은행 990-090818-990 GP(김동건,배영혜)